

한없이 높아진 '서민 대출 문턱'

시중금리 하락에도 은행들 심사 강화

중소 대출 평계 가계 대출 한도 축소

최근 시중금리가 크게 떨어졌지만, 은행들의 가계대출 문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평계로 이번에는 가계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신용대출 영업 축소=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영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축소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1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하려면 본부 승인을 거치도록 영업점에 지시했다. 일선 영업점은 가능

하면 1억원 이상 대출을 취급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를 대폭 줄였다.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엘리트론'은 최고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절반 줄였고 판사·약사 등을 타깃으로 한 '탑스 전문직 우대론'은 최고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예비의사와 의사를 대상으로 한 '닥터론'은 2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각각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

출 취급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신용대출도 전체 신용등급 1~10등급 중 기준에는 상위 7등급까지 대출을 해줬으나 지금은 7등급도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은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은행들은 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주택가격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는 점도 불안해하고 있다. 은행들은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참고하는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통계가 실제 거래가 차이가 있다 고 보고 있다.

◇은행들 "리스크 관리, 담보가 산정 어려워" = 은행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줄이는 것은 부실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시장의 '복병'이다.

주택거래가 실종된 가운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기악화로 가계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상황

을 못해 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은 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주택가격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는 점도 불안해하고 있다. 은행들은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참고하는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통계가 실제 거래가 차이가 있다 고 보고 있다.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는 전국 1만4천 여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8천800여개 해당지역의 중개업소가 매주 시세를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표시되는데,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지 않다보니까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중기대출을 연일 압박하는 점도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요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국내 은행들의

해외차입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신 신규 원화 기업대출 가운데 중기대출을 비중을 45%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연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가본 비율을 끌어올리는 게 발등의 불안 은행으로서는 중기대출을 늘리려면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민가계 고통 가중=문제는 앞으로도 은행들의 대출 조건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모 은행 담당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서 보듯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는 신규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가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은 자금줄마저 끊기면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이 BIS비율을 맞추려고 가급적 이내 대출을 막고 협찰을 보유하여 해서 정상적인 신용증가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서민경제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금융권, 車 업체 유동성 지원 조건

先 구조조정 後 선별구제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권이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해 크레디트 리인(신용공여 한도)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손을 내미는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 선별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업체별로 회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완성차 업체에 대해 체권단 중심의 유동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완성차업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보이고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선 크레디트 라인 상향 조정 등의 유동성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옥석을 가려 선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완성차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오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되며 자체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처럼 완성차업체의 유동성 불안이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우선 자동차 수요를 살리기 위해 할부금융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지 쌓이는' 中企

1,400여곳 조사… 11월 중 평균 가동률 67% 그쳐

자동차·IT 대기업 감산 여파 일감 줄어 휴업 속출

자동차·정보통신(IT) 대기업들의 생산 중단과 감산이 잇따르는 등 실물 경제의 침체가 뚜렷해지면서 중소기업의 공장들도 멈춰서고 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제조업체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설비 가동률은 67.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의 68.9%보다 1.8%포인트 더 떨어진 것이다. 카드체 버블(거품) 붕괴로 경제가 침체된 지난 2003년 9월의 66.6% 이후 5년 2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동률 하락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지난 3월 71.1%였던 가동률은 지난 6

월 70% 아래(69.8%)로 내려앉은 뒤 6개월 연속 60%대에 머물고 있다.

지표가 8개월(3~11월)동안 줄곧 떨어진 것은 지난 2002년 10월~2003년 7월의 10개월 연속 하락 기록에 이어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긴 것이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일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창업은 출범된 가운데 파산 소식만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7대 도시에서 새로 설립된 법인 수는 모두 2만6천30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천218개보다 7%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부도업체 수는 1천93개로 작년동기의 917개보다 19% 줄었다. /연합뉴스



소띠 해 소 장식품 인기

2009년 기축년 소띠해를 맞아 서울 갤러리아명품관의 악세서리 매장에서는 새해 맞이 집안 장식용으로 크리스탈로 만든 이색 소 장식품 및 애기자기한 소 캐릭터 모양

의 휴대폰 줄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가격은 크기에 따라 15만원~46만원. 휴대폰 줄은 12만원. /연합뉴스

부실 저축銀 공적자금 투입 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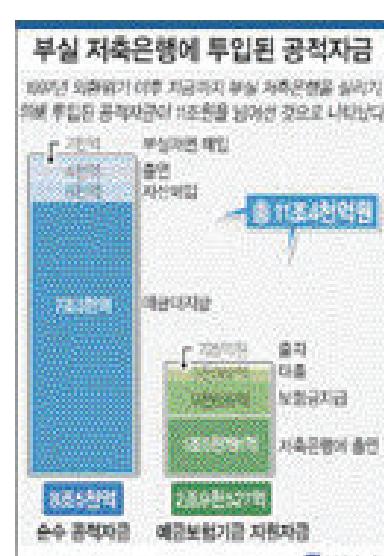
외환위기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부실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환란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인 자금은 순수 공적자금 8조5천억원과 예금보험기금 지원자금 2조9천억원 등 총 11조4천억원에 달한다.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보증 체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과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쓰였다.

106개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예금대지급(7조3천억원)과 자산매입(6천억원), 출연(4천억원), 부실채권 매입(2천억원) 등에 활용됐다. 예금보험기금은 저축은행에 출연(1조5천781억원), 보험금지급(9천639억원), 대출(3천382억원), 출자(725억원) 등의 방식으로 2조9천527억원을 투입했다.



예보기금은 예금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일정요율의 보험료를 납입받아 적립했다가 경영부실 등으로 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조성된 것이다. /연합뉴스

'못말리는 사교육비'… 1년새 20% 성장

통계청 조사… 노인요양 복지시설 매출도 40% ↑

지난해 사교육 시장이 여타 서비스 업에 비해 2배 더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습관과 사회구조 변화로 외국어 음식점과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등도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서비스업 부문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말 서비스업부문의 매출액은 916조1천억원으로 1년전 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체 수는 223만9천개로 1.7%, 종사자수는 4.7% 늘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사업체 수는 전체의 64.6%를 차지해 전년대비

0.6%포인트, 매출액은 71.2%로 0.8%포인트 감소했다. 대다수 영세 사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점차 기울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사교육 열풍으로 입시학원의 성장세는 두드러졌다. 입시학원과 보습학원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일반교과 학원의 지난해 매출액은 4조9천727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20.3%

급증했다. 전체 서비스업 매출 증가율이 10.6%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 시장이 2배 더 빨리膨창했다는 의미이다.

영어교육 및 직장인들의 외국어 학습 등의 영향으로 외국어 학원 매출

액도 32.4% 늘어났다.

또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요양 복지시설 매출액은 전년대비 40.9% 증가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반 병원 및 치과의원의 매출액도 39.8%, 29.1%씩 늘었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30.4%),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29.2%), 골프 연습장 운영업(19.5%)도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폭이 큰 업종 중 하나다.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어린이를 보호관리하는 보육시설 운영업(놀이방)과 직장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기타 식료품 소매업(반찬가게), 기타 가공식품 판매업종(인스턴트식품) 등의 매출액도 전년대비 33.3%, 8.2%, 21.2%씩 늘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직원	대출/경력무관	회사내규	12/30	062-530-1142
(주)집안집	신한카드 고객관리상담, 정규직 2기/고정급여지급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30	062-234-1566
나리건설(주)	경리, 회계, ERP 의사일	고졸/경력1년	1400~1600	12/31	062-972-9612
디케이산업(주)	경영기획사무원	대출/경력1년	2000~2200	12/31	062-953-0885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동양상 촬영 요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220-5022
SC상속저축은행	[광주 전체] 신용대출 영업/상담 및 고객관리	고졸/경력무관	2200~2400	12/31	062-717-6566
송정경희한의원	한의원 직원(초보기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31	062-942-7500
이름다운세상	2009년 정규직 디자이너(출판, 편집디자인)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1	062-232-0148
동서정보시스템	웹디자이너/웹프로그래머/응용프로그래머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2	062-682-7894
루이까스텔	의류판매, 매장관리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2	062-384-2001
해피버스	포토플래너/촬영기사/상담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2	062-971-0898
누리원	사무보조, 인터넷쇼핑몰 md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05	062-523-9092
(주)코스모이엔지	전기기사/토목기사/건축기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5	010-7440-3976

〈광주집코리아 512-6210 제공〉